

를 답변 바람.
(答 辯)

○ 시내 주요간선도로의 승용차 통행속도 조사는 매년 5~6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○ 금년에도 지난 5~6월 승용차 통행속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.

○ 통행속도의 산출방식은 도로별 구간거리를 신호대기, 구간정체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통행에 소요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의 운행속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

○ 서울의 경우 자동차가 하루에 계속 300여 대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교통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.

○ 따라서 교통정책에 따라 주요도로의 통행속도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경우 이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습니다.

○ 서울시내 도로의 통행속도가 시간당 160m 빨라진 것은 절대 수치만 비교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 0.76% 정도에 불과합니다만, 이는 서울시 전체 도로의 평균속도가 빨라진 것으로,

○ 서울시내 216만대의 차량이 모두 시간당 160m를 빨리 운행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비록 적은 양이라고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며,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만 있다면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○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'97년 통행속도가 '94년도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

- 서울의 승용차 통행속도는 '92년 22.62km/h, '93년 23.52km/h로 향상되었으나, '94년 23.18km/h, '95년 21.69km/h, '96년 20.90km/h로 통행속도가 계속하여 떨어져 오다 '97년에는 21.06km/h로 3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회복되었습니다.

- '97년도 통행속도가 '94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표현은 '94년 이후 처음으로 통행속도가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회복되었다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된 사항으로

○ '94년 속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인되도록 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표현과정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

(質疑要旨)

상수도 부실관리에 대하여

○ 계량기가 감지해 내지 못하는 양이 10.48%로 1억 9,000만톤이나 된다는데, 이를 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지, 원인도 찾지 못하고 소실되는 25% 455만톤은 어디로 갔는지 생산해 놓은 수돗물이 원인규명도 안 된 채 1년에 2,000억원 이상 손실되고 있음.

○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고 요금인상에만 의존하고 있는바, 84년부터 노후관 개량을 해 왔으면 개량한 만큼 누수율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변함이 없다면 고질적인 비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닌지, 부조리 척결의지를 갖고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.

(答 辯)

□ 96년도말 기준 유수율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래와 같으며,

| 구 분 | 수량(백만톤) | 비율(%) | 금액(억원)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총 생산량 | 1,826 | 100 | |
| 유수수량 | 1,183 | 64.77 | |
| 무수 | 643 | 35.23 | 1,870 |
| 수계량기 불감수량 | 191 | 10.48 | 556 |
| 수도사업용수 | 1 | 0.07 | 4 |
| 량 누수 및 원인불명 | 451 | 24.68 | 1,310 |

※ 금액 : 290.6원 적용(96.결산기준)